

본문: 여호수아 6:1~7

제목: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

## - 설교 한문장 요약

“복음을 따르는 삶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 1. 회년을 선포하라!

첫 단추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첫 전투인 여리고의 점령은 앞으로의 가나안 땅 점령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더불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을 직접 알려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라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른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들고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되, 6일 간은 매일 한 번씩, 7일에는 7 번을 돌며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여리고를 점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반복되는 단어와 표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것은 ‘나팔’(רָפָא)인데, 이는 “양각”(בָּצִ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각’으로 번역된 ‘요벨’(בָּצִי)은 구약에서 총 27회 사용되었는데, 출애굽기에서 1회, 오늘 본문의 단락에서 5회 ‘양각’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1회는 ‘회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에서 ‘양각 나팔’이라는 번역된 것은 ‘회년 나팔’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리고의 나팔 소리가 회년의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은 또 다른 반복되는 표현, ‘일곱’(שֶׁשֶׁשׁ)을 통해 다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명의 제사장과 7개의 양각(회년) 나팔이 반복되는 표현, 7일 간의 성 주위를 도는 것과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각(회년) 나팔을 분다는 표현은 매 7년인 안식년이 7번 반복된 이듬해인 회년과 그 회년 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회년의 규례는 땅을 본래 하나님께 분배받은 주인에게 회복하고, 종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회년은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을 쉬게(안식하게)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신 어처구니 없는 전략은 ‘회년의 선포’, 신약적 의미에서는 ‘복음의 선포’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 회년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으며,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 애굽의 종이었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소산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졌고, 무엇보다 아담의 타락으로 깨어진 안식이 회복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회년을, 복음을 선포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전략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아가 가나안 땅의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2. 복음을 선포하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이상 자유의지란 없으며, 죄의 노예이지만 남아있기에 죄를 따라 행하는 것 밖에 결정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었고, 그 이름은 ‘예수’(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참 떡과 참 음료를 주셨습니다. 창조의 안식을 회복하시어 지금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나아가 그 안식의 회복이 완성 될 것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4:4~11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었던 안식 보다 더 나은 안식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순종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여리고와 같은 점령해야 할 성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들을 어떻게 점령 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향해 회년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여리고와 같은 성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훗날 완성될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14:6~15

제목: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라

## - 설교 한문장 요약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좇는 자들의 것입니다.”

### 1.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 가나안에는 점령해야 할 지역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한 인물의 땅 분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거부할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강권한 인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그가 정탐했던 지역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45년이 지나서 까지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대로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가 정탐한 땅을 약속 하셨습니까?** 이를 8절과 9절, 14절에서 반복하며 언급합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는 원어로 살펴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로 번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 받은 땅은 과거 출애굽 1세대를 좌절하게 만든 아낙 자손의 땅이며, 아직 점령되지 않아 여전히 아낙 자손이 그 땅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 쫓 되면 이미 정복한 땅이나 정복하기 쉬운 땅을 요구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요청한 것은 정복해서 평안하거나 점령하기 쉬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말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 요청을 모든 땅 분배에 앞서, 유다 자손들 앞에서 했습니다. **아직 점령해야 할 지역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것입니다.

### 2.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갈렙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과 상황과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은 충분히 평안하고 쉬운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가 요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척박하고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사랑할 이웃을 선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좇는다면 내가 사랑 할 수 없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곁에 있게 하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좇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리하셨듯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사랑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24:14~24

제목: 여호수아의 유언

### - 설교 한문장 요약

“우리 삶에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 1. 우상을 치워버리라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세겜에서 이른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겜은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선포했던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그 땅에서 다시 한 번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고 약속에 신실하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한가지 사실을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 섬기라’(τρυφ)는 것이며, 이 섬기다는 단어는 본문에서만 15회 사용될 만큼 크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발 맞추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니……”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질투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백성들의 대답과는 다르게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23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속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 ”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신들을 섬겼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 이방신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이제’(νυν)라는 말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이방신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남아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임을 다소 과격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이었으며, 이미 모세를 통해 신명기 29장에서 예고 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후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 19~20절의 이야기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23절 후반부에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신명기 30장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또한 이후 진행될 역사 속에서 새언약과 그 성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요청에 답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다짐하며, 이후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 2.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

인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신들, 우상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우상을 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의롭다 칭함받았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상들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위주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상을 절대 포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본문: 사사기 2:8~15

제목: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 - 설교 한문장 요약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야 합니다.”

#### 1.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사사기는 위대한 용사들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대표되는 그들 주변의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동일하게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그들의 대적들에게 넘겨 주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본문 이후에도 이야기 하듯 그들의 괴로움과 부르짖음에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클리셰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명기 2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었고, 여호수아 23~24장을 통해 다시 한 번 갱신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는 이방의 신들,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쩌서 그들 주변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을 그들처럼 섬기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세대(여호수아)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세대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설과 무용담과 같은 것이지, 그들의 현실의 삶과 연관성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는 비어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들어 앉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세대’라고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재앙을 통해 고난과 징계를 당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 2.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음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다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어서 하

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음성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그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이고 살아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명령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가?” 이 말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의 입술을 통해 듣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도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도의 붙드는 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는 증인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

#### - 참고 문헌 및 설교

『여호와와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생명의말씀사, 김지찬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6: 여호수아』, 대한기독교서회, 손석태

『여호수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엑스포지멘터리: 여호수아』, 국제제자훈련원, 송병현

『현대성서주석: 여호수아』, 한국장로교출판사, 제롬 F. D. 크리처

『WBC: 여호수아』, 솔로몬, 트렌트 버틀러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7: 사사기』, 대한기독교서회, 김의원/민영진

『사사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엑스포지멘터리: 사사기』, 국제제자훈련원, 송병현

『현대성서주석: 사사기』, 한국장로교출판사, J. 클린턴 맥캔

『WBC: 사사기』, 솔로몬, 트렌트 버틀러